호적, 이렇게 바뀝니다.

주제 폐지, 부성원칙의 수정, 친양자입양 제도, 성 • 본 변경제도 등이 반영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. 1.1.부터 시행됩니다.

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

- 호주를 중심으로 개家단위로 작성되었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
-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
- 기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기질 필요가 없고, 기족구성원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.
- 호적부 변경사항

호적(부)

→ 기족관계등록(부)

호적등・초본(1가지)

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(5가지)

취 적

등록기준지

→ 기족관계등록창설

- 기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, 처리한 전산정보 자료 '**가족관계등록부**'도입
-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
 - 기족관계 증명서 (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)
 - 기본 증명서 (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 등의 인적사항)
 - **혼인관계 증명서** (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• 이혼에 관한 사항)
 - **입양관계 증명서** (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• 파양에 관한 사항)
 - 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(천생부모 • 양부모 또는 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• 파양에 관한사항)

새로운 가족제도 이렇습니다.

-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 시행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경우 그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성(姓) 변경제도시행

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

- 친양자입양제도시행
 -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 재판을 받아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받는 제도
 - 친양지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종료됨.
 - 일반입앙과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,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.
 - 일반입양은 혐의에 의해, 천양자입양은 재판에 의해 성립됨.
 - 일반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, 친양자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
 -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, 친양자 입양은 위 관계가 종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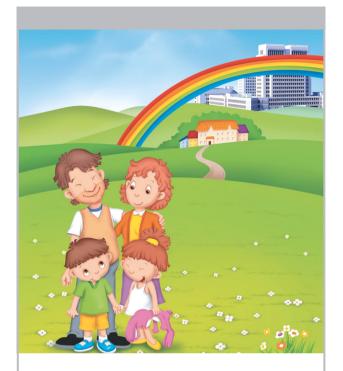
가족관계증명서 무료 시범 발급

- 기 간 : 2007, 11, 2, ~ 2007, 11, 22, ■ 장 소 : 시•구청 및읍•면•동사무소
- 가족구성원이 빠진 경우에는 호적관서에 신고

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가족제도가 시행됩니다.



대법원홈페이지 • www.scourt.go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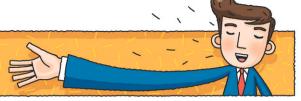
조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뀜니다.

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- 2008. 1. 1.부터



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 (www.scourt.go.kr)를 참고하세요.

세롭게 시행되는 기쪽관계등록제도란?





















호주에 떼지 후 변화이는 기쪽에도!

















